

교총 Position Paper

2009 개정 중등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13. 1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차 례

I. 들어가며	1
II. 중등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제언	3
1. 현장의 선생님은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3
2. 교육내용이 청소년 발달수준에 적합한가?	5
3. 교육내용의 순서가 청소년 발달단계에 적합한가?	9
4. 어떻게 시의 적절하게 교육을 할 것인가?	10
5.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가?	13
6.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인가?	17
7.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인가?	19
8. 교과간 연계성과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23
III. 마무리하며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은?	24
<참고문헌>	25

2009 개정 중등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물음(?)에서 느낌(!)으로 -

황보근영 (경기도 행신중학교 수석교사)

I. 들어가며

필자는 금년 1학기 중반에 근무 지역의 어느 중학교에 평가 관련 컨설팅을 나가게 되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컨설팅의 과제였다. 도덕교과 평가계획서와 1회고사 평가 문항지 검토를 하면서 컨설팅을 요구한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불평조로 애로 사항을 풀어놓는다.

의뢰선생님 : “교과서 진도 나가지가 바쁘네요.”

컨설턴트 : “학교 업무가 많으시죠? 달리 바쁜 이유가 있나요?”

의뢰선생님 : “주당 1시간 수업을 하면서 도덕 교과서 한권을 다 떼려니 바쁠 수밖에 없네요. 교과서가 왜 그렇게 두텁고 어려운지?”

컨설턴트 : “저희 학교에서는 주당 3시간을 하는데 왜 1시간 만 하게 되었죠?”

의뢰선생님 : “1학년 때 1, 2학년 때 2, 3학년 때 2단위를 하기 했습니다.”

컨설턴트 : “예? 그럼, 1학년 때 1시간 수업하면서, 「도덕1」 교과서 한 권 진도를 나갑니까? 2학년 때는 「도덕2」 그렇다면, 3학년 때는 뭘로 가르치죠?”

의뢰선생님 : “3학년 때는 「도덕3」 교과서로 가르치죠.”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신다.)

컨설턴트 : “예?” ‘아뿔싸! 선생님이 「도덕3」 교과서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

“「도덕3」 교과서는 없습니다.”

의뢰선생님 : “예? 「도덕3」 교과서가 없다니? 왜 없죠?”

선생님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지 않았거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나보다.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항상 학년별로 교과서가 있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학년별 교과서가 있는 줄 알고 있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아주 중요한 변화인 학년군(중1~중3학년군) 개념이 도입되고, 도덕교과 교육내용체계에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지만 이 학교로서는 아무튼 천만다행이다. 만약 평가계획서와 평가문항지만 제출하고 서면으로 컨설팅을 했더라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을 것이다. 비록 이미 앞질러진 물이지만 여기서 발견하고 2학기부터는 진도 계획을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하면서 차년도 교육과정편성에서는 제자리로 잡아 갈 것이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중요하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 편성한 교육과정은 그 폐해가 고스라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 기간도 최소한 1~2년으로 오래갈 것이다. 학교의 교과교육과정 편성도 이렇게 중요한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은 얼마나 중요할까?

현재 일선학교에서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일부개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 ② 공통교육과정[초1~중3]과 선택교육과정[고1~고3] 편성
- ③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위한 학년군과 공통교육과정의 교과군 분류
- ④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과목 이내 편성 원칙 제시 집중이수(교양, 예체능 제외)
- 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 ⑥ 평가의 개선 등 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 강화
- ⑦ 인성교육 실천

이런 방침 중에서, 일선 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항은 바로 ②, ③, ④이다. ②의 공통교육과정[초1~중3] 기간 축소, ③의 학년군과 교과군 분류, ④의 8과목 집중이수(교양, 예체능 제외)의 방침은 중등학교 전체 교육과정 편성과 도덕과 교과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연계성과 적합성의 측면에서 2009 개정 중등도덕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언하며, 현장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찾아 운영되면 좋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고에서 언급하게 되는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교육내용의 적합성의 개념을 다음과 정리한다.

○ 교육과정의 연계성 개념 - 김진숙(2013)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

개념 구분	의미	특성	이해도 : 전후-학교/학년/교육과정									
계속성 continuity	같은 요소, 지식, 기능 등의 교육내용이 두 개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계속 선정되고 조직됨	수직적 연계성	<table border="1"> <tr> <td>이전단계</td> <td>이후단계</td> </tr> <tr> <td>★●◆■▲</td> <td>◆▲★■●</td> </tr> </table>	이전단계	이후단계	★●◆■▲	◆▲★■●					
이전단계	이후단계											
★●◆■▲	◆▲★■●											
계열성 sequence	교육내용의 어떤 요소, 지식, 기능이 발전적인 형태로 두 개 교육과정에 선정, 조직됨	수직적 연계성	<table border="1"> <tr> <td>이전단계</td> <td>이후단계</td> </tr> <tr> <td>★●◆■</td> <td>◆▲★■●</td> </tr> </table>	이전단계	이후단계	★●◆■	◆▲★■●					
이전단계	이후단계											
★●◆■	◆▲★■●											
통합성 integration	교육과정이 시공간적(시기/교과)으로 즉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교육내용의 어떤 요소, 지식, 기능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선정, 조직됨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	<table border="1"> <tr> <td>시기 교과</td> <td>이전단계</td> <td>이후단계</td> </tr> <tr> <td>A교과</td> <td>▲●◆■</td> <td>◆▲★■ ●</td> </tr> <tr> <td>B교과</td> <td>△■○</td> <td>△■○●</td> </tr> </table>	시기 교과	이전단계	이후단계	A교과	▲●◆■	◆▲★■ ●	B교과	△■○	△■○●
시기 교과	이전단계	이후단계										
A교과	▲●◆■	◆▲★■ ●										
B교과	△■○	△■○●										
접합성 articulation	두 개 학교급 혹은 교과 교육과정간 맞부딪힘이 일어나는 특정 시기 와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접합됨 (시기에 초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모두망라	<table border="1"> <tr> <td>이전 학교</td> <td rowspan="2">접 합</td> <td>이후 학교</td> </tr> <tr> <td>●◆■</td> <td>●●◆◆■■</td> </tr> </table>	이전 학교	접 합	이후 학교	●◆■	●●◆◆■■				
이전 학교	접 합	이후 학교										
●◆■		●●◆◆■■										
연결성 connection / relation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이나 교과 교육과정을 전체적, 거시적으로 보아 이들이 연결되어야 함	위의 4개 모두 또는-1	<table border="1"> <tr> <td>전 학교급</td> <td rowspan="2">내 외 연 결</td> <td>후 학교급</td> </tr> <tr> <td>●◆■</td> <td>●◆■◇□</td> </tr> </table>	전 학교급	내 외 연 결	후 학교급	●◆■	●◆■◇□				
전 학교급	내 외 연 결	후 학교급										
●◆■		●◆■◇□										

- **교육내용의 적합성 개념** : 민용성(2011)에 의하면 교과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내용 영역이 관련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교과교육의 목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게’ 교과 교육내용의 질과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II. 중등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제언

교육과정 개정이 2007 개정 이후 고작 2년 만에 2009 개정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단행되었다. 대대적이란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학년군’의 개념과 ‘교과군’의 개념 도입이다. 물론 그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한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서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목의 집중이수를 유도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장은 그 뜻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다. 2년 만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기는 곤란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취지였다면 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분석하면서 ‘질 높은 교육과정(quality curriculum)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과 아쉬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2년 만의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집중이수제에 의한 폐해(2011년의 중1학생들,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의 5단위씩 학기교차 집중이수로 교과서 3권씩을 들었다 놔다하는)와 위에서 말한 혼란(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교과서 2권 축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집필·심의·출판·선정과정과 인쇄·보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국가·사회의 재정적 낭비도 가져왔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던가,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에게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었는가, 이후에라도 교육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자 적극 지원했는가도 돌아봐야 한다.

본고에서는 2009 개정 중등도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8개의 물음(?)과 느낌(!)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1. 현장의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 친절한 교육과정으로!

[현황]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도덕과 내용체계표에서 첫 번째 영역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더해본다. 2007 개정에서는 중1(7학년)에서 고1(10학년)까지의 학년구분이 명확하며 배우는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교과서는 중학교 「도덕1」, 「도덕2」, 「도덕3」, 고등학교 「도덕」으로 학년별 교과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 [2007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

영역 \ 내용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인간과 도덕> ○ 도덕의 의미 ○ 도덕적 탐구 ○ 도덕적 실천	<일과 배움> ○ 일과 놀이 ○ 공부와 진로 ○ 계획과 성취	<삶의 목적> ○ 자아정체성 ○ 행복한 삶	<인간과 자유> ○ 자유와 자율 ○ 도덕적 판단의 과정
교과서	중학교 「도덕1」	「도덕2」	「도덕3」	고등학교 「도덕」
단 위	2	2	1	1

2009 개정 중등도덕과의 내용체계를 살펴보자.

○ [2009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

영역 \ 내용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마) 인간 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사) 도덕적 자아상 (아)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 참고사항 ① 중학교 1~3학년의 내용체계를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음. 따라서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일반 수준’(4개 영역 모두 포함)에 대한 학습을 모두 완료한 후, 심화 수준으로 이행해야 함. ② 중학교 1~3학년은 내용영역별로 (가)~(래)는 ‘일반 수준’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심화 수준’에 해당됨. ③ (*)는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요소를 의미함.				
수준구분			일반수준	심화수준
교과서	2권		중학교 「도덕1」	「도덕2」
이수단위	학교자율		3단위(또는 2단위)	2단위(또는 3단위)

[문제점]

위의 2009 개정에서는 2007 개정과 달리, [중학교 1~3학년군]으로 교과 내용을 배우는 학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학교에서 1, 2학년으로 나누거나 2, 3학년 또는 1학년에서 3학년 때에 나누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한 까닭이다. 또한 내용체계표 아래의 ‘※참고사항’을 두어 내용영역별 (가)~(래)는 ‘일반 수준’으로 중학교 「도덕1」 교과서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심화 수준’으로 「도덕2」 교과서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도덕3」 교과서는 분명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앞의 이야기에서 컨설팅을 의뢰한 선생님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지 않았거나, 보았더라도 ‘※참고사항’의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개념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도덕3」 교과서는 아직 집필이 되지 않고 추후 집필되어 나오는 줄 알았다는 대답을 한 걸보면 교과서가 2권으로 만들어질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제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친절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에서 다음과 같이 눈에 띄게 수준의 구분을 넣고 나아가 교과서는 I, II로 구분하여 2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릴 수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높이고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내용체계표

영역 \ 내용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마) 인간 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사) 도덕적 자아상 (아)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 개선의 내용체계표

영역 \ 내용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일반수준(도덕 I)	심화수준(도덕 I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마) 인간 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사) 도덕적 자아상 (아)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2. 교육내용이 청소년 발달수준에 적합한가? - 좀 더 쉬운 교육내용으로!

[현황]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① 교과서가 4권에서 2권으로 줄었다.
- ② 4년에 걸쳐 배우는 것을 2년 만에(특별히 3년인 경우도 있지만) 배운다.
- ③ 6단위의 수업이 5단위의 수업(학교에 따라서는 4단위)으로 줄었다.
- ④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중학교 때 배운다.
- ⑤ 4개 영역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내용에는 통합과 축소 등의 변화가 있다.
- ⑥ 교과서에 말하는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6개에서 8개로 줄었다.
- ⑦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가치·덕목’이 제시되었다.

다음의 2007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표와 2009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표를 비교하면서 도덕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해본다.

○ [2007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

영역 \ 내용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인간과 도덕〉 ○ 도덕의 의미 ○ 도덕적 탐구 ○ 도덕적 실천	〈일과 배움〉 ○ 일과 놀이 ○ 공부와 진로 ○ 계획과 성취	〈삶의 목적〉 ○ 자아정체성 ○ 행복한 삶	〈인간과 자유〉 ○ 자유와 자율 ■ ○ 도덕적 판단의 과정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예절과 도덕〉 ○ 가정생활과 도덕 ○ 친구와 우정의 의미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 사이버 예절	〈청소년과 도덕〉 ○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이성교제와 성 도덕	〈인간 존엄성과 인권〉 ○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	〈사회정의와 윤리〉 ○ 사회 제도와 정의 ○ 사회 윤리의 제 문제 ▲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나의 삶과 국가〉☆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평화와 인류애〉▼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국가와 민족의 윤리〉 ○ 국가와 윤리 ○ 민족과 윤리 ★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환경과 도덕〉 ○ 환경과 인간의 삶 ○ 환경친화적 삶의 방식	〈문화와 도덕〉 ○ 진정한 아름다움 ○ 예술과 도덕 ○ 과학과 도덕	〈삶과 종교〉 ○ 삶의 유한성 ○ 종교와 도덕	〈이상적인 삶〉◆ ○ 평화로운 삶의 추구 ○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 [2009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

영역 \ 내용	주요 가치·도덕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일반수준	심화수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태) 도덕적 실천	(마) 인간 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 (사) 도덕적 자아상 (야)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
우리·타인과의 관계		효도 예절 협동	(가) 가정생활과 도덕 (나) 친구 관계와 도덕 (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 (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마) 타인 존중의 태도 (바)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사) 청소년 문화와 윤리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준법·공익 애국심 통일·지구 인류애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태)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마) 사회 정의와 도덕 ▲ (바)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야)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자연애 생명 존중 평화	(가) 환경 친화적인 삶 * (나) 삶의 소중함과 도덕 (다) 과학 기술과 도덕 (태) 문화와 도덕	(마)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바)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

[문제점-1]

이상을 볼 때, 4개의 학년이 실제적으로 2개의 학년으로 줄어들고 배우는 시기도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학생발달 수준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재구성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며 학생발달 수준에 적합했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4개 학년을 2개 수준(일반-심화)로 줄이면서 퍼즐 짜맞추기와 같이

조합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는 학생발달 수준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가령, 2007 개정에서의 7학년 <나의 삶과 국가>(☆), 9학년 <세계평화와 인류애>(▼),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사회정의>(▲), <국가와 민족>(★), <마음의 평화와 이상적인 삶>(◆) 단원이 2009 개정의 심화수준에서 빠짐없이 압축되어 들어가면서 내용의 양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의 질은 그만큼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또한 2007 개정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다면, 2009 개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에서 일반수준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서 배우게 되면서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비해 어렵게 되었다.

[제언-1]

이상을 통해 볼 때 교육내용은 학생의 신체적·인지적 발달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수준에 맞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축소되었으면 한다. 가령 2007 개정의 9학년 <세계 평화와 인류애> (▼)경우, 2009 개정의 일반수준 ‘(나)문화의 다양성과 도덕’(▼)과 심화수준의 ‘(아)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에서 나누어 있지만 일반수준의 하나의 단원에서 합하여 축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좀 더 쉽게 조절했으면 한다.

첨언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한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교육내용이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요소이지만, 교육과정을 편성할 적에 현장 지도교사와 학습자의 요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교수 실천가와 학습 수요자에게도 질적으로 좋은 교육과정을 제공되어지길 바란다.

[문제점-2]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의 내용체계에서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계속성이나 계열성에 의한 연계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 [2009 개정 중등도덕과 내용체계에서의 Ⅲ영역의 연계성 분석]

영역	내용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지향	영역별	일반수준	심화수준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존중	준법·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마) 사회 정의와 도덕	
	책임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매)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정의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배려	(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아)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연계성			☆○△▽	★●◆■	

일반수준(「도덕1」 교과서)와 심화수준(「도덕2」 교과서)의 같은 영역 ‘Ⅲ.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안에 있는 각각의 4개 내용이 가치 덕목으로서는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내용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의 계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열성을 드러내자면 일반수준을 배워야만 심화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수준을 배우지 않아도 심화수준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일반수준, 심화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의 내용에서도 이와같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연계성(적어도 계열성)을 따져보기 위해 [학습내용별 성취기준]을 비교해보자.

○ [2009 개정 중등도덕과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영역의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일반수준의 성취기준	심화수준의 성취기준
<p>(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p> <p>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소외받는 이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당위성을 깨달아 내면화한다. 또한 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양성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바) 사회 정의와 도덕</p> <p>사회관계 속에서의 공정성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개개인의 삶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다양한 양상을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평가한다.</p>
<p>(나) 문화적 다양성과 도덕</p> <p>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문화적 편견 및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인성 핵심 역량, 즉 역할 채택, 배려, 관용, 공감적 이해 등의 태도를 지닌다. 또한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타문화 및 자문화를 성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삐)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p> <p>인간의 삶에 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또한 개인이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도덕적인 정치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도덕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계한다.</p>
<p>(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p> <p>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 생활을 이해하며, 남북한 모두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p>	<p>(쌈)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p> <p>애국심과 준법의 중요성 및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근거를 이해하고,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 권리와 책임(의무) 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데)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p> <p>남북한 체제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면서 통일 준비 및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유추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이)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p> <p>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원천을 ‘효, 선비 정신, 풍류 정신, 국난 극복 정신, 평화 애호, 자연 애호’ 등과 같은 정신적·도덕적 가치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국인의 역할과 과제를 인식한다. 또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및 사회 정의, 지구 환경 보호, 문화적 다양성, 평화의 문제 등 오늘날 지구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립한다.</p>

[제언-2]

굳이 과정의 연계성을 지니려면 일반수준의 (가)~(라)의 내용순서에 따라 심화수준의 (마)~(아)의 내용순서가 맞아야 할 것이고,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심화되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계열성(sequence)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사회교과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교과 목표와 내용의 적합성 기준에 따라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한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해 각 교과서의 일반수준(도덕1)과 심화수준(도덕2)의 동일 영역 내지 내용은 동일인에 의해 집필되어야 연계성(계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수준	연계순서	심화수준	내용의 삭제 또는 심화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	(마) 사회 정의와 도덕	*(가)와 (마) : 삭제 (사회과목-인권)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	(아)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나)와 (아) : 삭제 (사회과목-문화, 세계화)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라)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	(바)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다)(라)에서 (바)(사)로 : 심화

- * (가)인권, (마)사회정의 : 중학교 사회(일반사회영역)-‘(9)인권보장과 헌법’과 겹쳐 삭제
- * (나)문화의 다양성 : 중학교 사회(일반사회영역)-‘(2)문화의 이해와 창조’와 겹쳐 삭제
- * (아)세계화 : 중학교 사회(일반사회영역)-‘(12)국제 경제와 세계화’와 겹쳐 삭제
- * (다)분단과 (라)통일 내용과 (바)(사)국가와 도덕적 삶 : 도덕교과 내용의 적합성 유지

이상과 같이 사회교과와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회교과에서 계열성을 유지하며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도덕교과에서는 일반수준 (다), (라)의 분단상태의 국가를 심화수준 (바), (사)의 통일 국가로 지향하는 내용으로 계열성을 도모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3. 교육내용의 순서가 청소년 발달단계에 적합한가? - 구상에서 추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지금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영역 순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순서	대단원 I	대단원 II	대단원 III	대단원 IV
영역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내용	도덕성찰과 실천-삶-인간-자아-공부진로-도덕적 탐구	가정-친구-사이버-이웃-타인존중-폭력과 평화-청소년문화	인권-문화다양성-분단과 통일-사회정의-국가-세계화	환경-생명-과학-문화(종교,예술)-마음평화-이상적 인간 사회

이상의 순서는 인간 삶의 공간이 ‘나<우리<사회<국가<초월적 존재’로 확장되는 측면에서 순서가 배열된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작은 구상적 공간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학습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 시작에서부터 도덕과목은 형이하학적 구상의 세계에서 형이상학적 추상의 세계로 갑자기 훌쩍 오를 것을 요구하는 무척 어려운 교과목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 아직 말 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제언]

생활의 확장 측면에서 순서를 정하자면 먼저 아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가정, 친구, 사이버 공간’에서 출발하여 ‘이웃, 사회, 국가’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세계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발전하는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역 순서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 중학교 도덕 일반수준에서의 영역 순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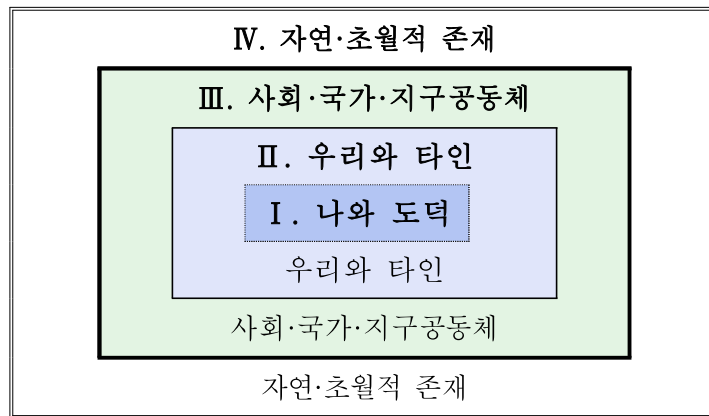
순서	대단원 II	대단원 III	대단원 I	대단원 IV
영역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물론, 이러한 순서의 조절은 단위 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육내용의 재구성, 지도시기의 조절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말이다. 또한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영역별 내용에서도 시기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4. 어떻게 시의 적절하게 교육을 할 것인가? - 계기에 따른 지도시기 재구성!

[현황과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 2009 개정 중등도덕과의 영역은 ‘나<우리<타인<사회<국가<지구공동체<자연과 초월적 존재’와 같이 공간적 크기에 의해 순서를 배열한 것이다.



그 안의 내용이 구상적이든 추상적이든 상관없이 공간적 크기로 순서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해(年)의 순환적인 계절과 기념일의 의미가 갖는 시간적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내용의 적합성에 해당되는 시의성(時宜性)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의성이란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에 딱 들어맞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의 시의성은 교육도 ‘때에 맞게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제언]

시중(時中)이라는 말이 있다. ‘때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성인(聖人), 공자는 《중용》에서, “군자는 중용하며 소인은 반중용한다. 군자의 중용은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라고 하였다. 그래서인가 훗날 아성(亞聖)이라 할 맹

자는 공자에 대해 말하기를,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나고,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물며, 은둔할 만하면 은둔하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한 것은 공자입니다.(可以速則速 可以久則久 可以處則處 可以仕則仕 孔子也)”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의 시중(時中)인 자(聖之時者也)’라고 칭송하며, “나는 공자에게서 배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비오면 물을 받아두고 날이 맑으면 그 물로 빨래하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는 무위자연의 삶과 다를 바 없다. 공부도 그렇게 때에 알맞게 시중(時中)하면 얼마나 좋을까? 놀고 싶을 때 놀고 배우고 싶을 때 배우며, 놀 때를 알고 놀고 배워야 할 때 알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긴다. 꼭 그런 말은 아니다.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알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정하고, 시의 적절한 교육시기를 정하여 때를 알아 거기에 알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구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연관하여 각 교과목의 교육내용도 지도시기의 조절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도 있다.

〈현재의 교육내용 순서〉								〈개선 제안의 교육내용 순서〉								
순서	대단원 II				대단원 III				대단원 II				대단원 III			
영역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내용	가정	친구	사이버	이웃	인권	다문화	분단	통일	친구	사이버	이웃	가정	분단	통일	인권	다문화
시기									3~4월	4~5월	5~6월	6~7월				

- 3월 :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먼저 [II-2. 친구관계와 도덕]을 배운다. 그만큼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고 우정의 가치 함양이 보다 핵심적인 성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내용이 청소년 인지발달 수준에 비견해볼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7942(친구사이)’의 우정 나눔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친구사랑의 날’(4월 2일, 7월 9일, 9월 4일, 11월 11일)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2일 이전에 단원의 수업을 미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 4월 : 정보통신의 날(22일)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 계기, [II-3. 사이버 윤리와 예절]
- 5월 : 가정의 달과 세계 가정의 날(15일) 계기, [II-1. 가정생활과 도덕]
- 6월 : 호국보훈의 달 계기, [III-3.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III-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수업할 수 있다.

국가·세계의 기념일 이외에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함양하며 범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창의적 역량을 길러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명절과 24절기도 시의 적절하게 교과내용과 연계하면 효과가 있다. 이러한 계기중심의 교육은 비단 도덕교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 교과에서 국가기념일과 세계 기념일을 계기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활동을 조직하며 수업을 해 나간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가기념일과 세계기념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고 교과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의 제2조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상 5일
- 정부 각종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09호(개정 2013.6.17)의 (제2조제1항 관련)에 의한 각종기념일은 모두 45일
- 국가기념일과 더하여 계기 교육에 의미 있는 날과 세계기념일을 표로 정리하면,

월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정부주관부처에서 행사주관)	UN, UNESCO, WHO 등 세계기념일	교과 연계성
		기타: 명절과 계기교육에 의미 있는 날	
1		(27)세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1)신정	역사
2		(20)세계 사회정의의 날, (21)세계 모어(母語)의 날 (8)2·8독립 선언일 [명절 음1/1]설날, [음1.15]대보름날	사회 국어 역사
3	(1)3·1절, (3)남세자의 날, (15)3·15의거 기념일, (3째 수)상공의 날	(8)세계 여성의 날, (21)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21)세계 시(詩)의 날, (22)세계 물의 날, (23)세계 기상의 날, (24)세계 결핵의 날, (25)세계 노예무역희생자 추모일 (26)안중근 의사 순국추념일	가정 사회 국어 과학 도덕역사
4	(1)째 금)향토예비군의 날, (5)식목일, (7)보건의 날, (1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9)4·19혁명 기념일, (20)장애인의 날, (21)과학의 날, (22)정보통신의 날, (25)법의 날, (28)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7)세계 보건의 날, (20)세계 장애인의 날, (22)지구의 날, (23)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명절 (4 또는 5일)]한식(寒食) [명절 음3/3]삼짇날	보건 도덕 과학 정보 특수
5	(1)근로자의 날, (5)어린이 날, (8)아버지 날, (15)스승의 날, (18)5·18민주화운동 기념일, (21)부부의 날, (3째 월)성년의 날, (31)바다의 날	(1)세계 노동자의 날, (3)세계 언론자유의 날, (3)태양의 날, (15)세계 가정의 날, (17)세계 원거리 통신의 날, (21)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22)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25)아프리카 해방의 날, (25-31)자치권이 없는 지역민족 연대주간, (29)유엔평화유지군의 날, (31)세계금연의 날 (15)세종대왕 탄신일, (20)세계인의 날 [음4/8]석가탄신일,	사회 과학 정보 보건 도덕
6	(1)의병의 날, (5)환경의 날, (6)현충일, (10)6·10민주항쟁 기념일, (25)6·25전쟁일	(4)세계 칩락희생 아동의 날, (5)세계 환경의 날, (8)세계 해양의 날, (17)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20)세계 난민의 날, (23)유엔공공봉사의 날, (26)세계 마약퇴치의 날 /고문희생자를 위한 날 (15)6.15공동선언일 [명절 음5/5]단오(端午)	과학 사회 보건 도덕
7	(2째 수)정보보호의 날, (17)제헌절	(11)세계 인구의 날 [명절 음6/15]유두절(流頭節)	사회 정보
8	(15)광복절	(9)세계 원주민의 날, (12)세계 청소년의 날, (19)세계 인주주의의 날, (23)세계 노예무역	사회 역사

		과 노예제도 폐지 기념의 날 [명절 음7/7]칠석(七夕), [명절 음7/15]백중(伯仲)	도덕
9	(18)철도의 날	(8)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10)세계 자살예방의 날, (15)세계 민주주의의 날, (셋째 화) 세계 평화의 날 / 유엔총회 개막, (16)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 (3째 화)세계평화의 날, (마지막 주)세계 바다의 날(World Maritime Day) [명절 음8/15]추석(秋夕)	국어 기술가정 사회 과학 도덕
10	(1)국군의 날, (2)노인의 날, (3)개천절, (5)세계 한인의 날, (8)재향군인의 날, (9)한글날, (15)체육의 날, (3째 토)문화의 날, (21)경찰의 날, (24)국제연합일, (28)교정의 날, (29)지방자치의 날, (마지막 화)저축의 날	(1)세계 노인의 날, (2)세계 비폭력의 날, (1째 월)세계 인간정주의 날, 세계 아동의 날, (4-10)세계 우주주간, (5)세계 스승의 날, (9)세계 우편의 날, (10)세계 정신건강의 날, (2째 수)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16)세계 식량의 날, (17)세계 빈곤퇴치의 날, (24)유엔의 날, 세계 발전 정보의 날, (24-30)군축·발전주간, (27) 세계 시청각유산의 날 (25)독도의 날, (26)안중근 의사 의거기념일 [명절 음9/9]중양(重陽)	도덕 사회 역사 국어 체육 과학 보건
11	(3)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농업인의 날, (17)순국선열의 날	(6)환경파괴방지의 날, (10)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9-14)국제 과학과 평화주간, (19)세계 관용의 날, (20)세계 어린이 날, (20)아프리카 산업화의 날, (3째 목)UNESCO 철학의 날, (25)세계 여성폭력근절의 날, (29)팔레스타인인들과 단결하는 날 [명절 음10/15]하원(下元), [명절 음10/20]손돌풍	역사 과학 도덕 기술가정
12	(3)소비자의 날, (5)무역의 날, (27)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1)세계 에이즈의 날, (2)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3)세계 장애인의 날, (5)세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날, (9)세계 반부패의 날, (10)세계 인권의 날(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기념), (11)세계 산의 날, (18)세계 이주민의 날, (19)남남 협력의 날, (20)세계 결속의 날, (29)생물종 다양성의 날 (25)성탄절 [[24절기 23 또는 24경]동지(冬至)	보건 특수 사회 과학 도덕

5.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가? - 성취기준 재구성!

<현황>

현재 적용되는 국가수준의 교과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일부개정)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공통 교육과정] / [선택교육과정-일반 과목/심화과목]

1. 추구하는 인간상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목표
 - 가. 성격 나.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 가. 내용체계
 - 나. 학년군(학교급)별 성취 기준**
 - 다. 영역 성취기준**
 - 라. 학습 내용별 성취기준**
5. 교수·학습 방법
6. 평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나. 다. 라’에서 말하는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학년도 중학교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 1학년에 적용되고, 2014학년도 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1학년에도 적용되는 **성취평가제에서 말하는 ‘성취기준’**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선 성취평가제에 말하는 성취기준의 의미를 알아본다.

○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2013학년도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

교육과정 상의 **영역 성취기준**과 **성취평가제**의 **영역 성취수준**의 내용을 살펴보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 영역 성취기준’ (2) 우리·타인과의 관계	성취평가제에서의 ‘내용 영역별 성취수준’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p>자신과 가정·학교·이웃관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가정·학교·이웃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p>자신과 가정·학교·이웃 관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인 효도, 예절, 협동 정신을 가정·학교·이웃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p>

<문제점>

앞에서 말한 성취평가제의 도입배경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있다. 성취평가제 매뉴얼(2013)에 따르면, ‘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제도 확립이 시급히 필요해짐에 따라’ 학교별로 창의·인성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

고 이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과 성취평가제의 성취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일선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 용어에서 혼란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상에는 ‘영역 성취기준’이 있지만, 성취평가제 매뉴얼에서는 ‘영역별 성취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영역별 성취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취기준·성취수준의 용어 적용에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취평가제 매뉴얼에서는 기본 도리인 ‘효도, 예절, 협동’이라는 가치 덕목을 더하여 ‘영역별 성취수준’의 [A]수준이 바로 교육과정의 ‘영역 성취기준’과의 진술과 거의 같게 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의 ‘학습내용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자. 학습내용별(중단원 기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평가제의 성취기준’ 진술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다만, 성취기준과 ‘상’ 수준의 성취수준의 비교에서는 성취기준은 ‘명확하게’와 ‘적극적인’ 부사를 사용하여 학습의 최종 도달기준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성취수준의 상·중·하 구분은 ‘제한적이지만’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준을 나누거나, ‘이해(인식)와 태도’ 측면 중 태도의 측면이 결여되면 ‘하’ 수준으로 매우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 (2) 친구관계와 도덕]의 경우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도922.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된 친구와의 사귀기 중요함을 이해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키워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또한 성과 사랑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아 가는 방법과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성 교제와 동성 친구와의 교제의 차이점과 이성 교제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도922.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성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u>명확하게</u> 인식하고,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지키려는 <u>적극적인</u>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상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성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중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성과 사랑의 의미를 <u>올바로</u> 인식하고, <u>제한적이지만</u>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성과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u>이해한다</u> .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 2012년에 개발·보급된 도덕과 성취기준은 학습내용별(교과서 중단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의 주제별(교과서 소단원 단위)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교수·학습과 평가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하고 학습주제와 요소 및 평가요소를 상세화·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제언>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소단원(교육과정 상의 주제)별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수업과 평가의 핵심 요소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 친구관계와 도덕 - 주제(소단원)별 성취기준 재구성(예시) : ②+③ 통합 고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주제	주제별 성취기준(재구성)
도922.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된 친구와의 사귀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키워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또한 성과 사랑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아 가는 방법과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성 교제와 동성 친구와의 교제의 차이점과 이성 교제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도922.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성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①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도9221.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된 친구와의 사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키워 나가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②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및 예방과 해결 방법	도9222. 학교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아 가는 방법과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친구간의 다툼, 폭력이 끼치는 사례 간접 체험 및 이해	도9223. 친구간의 다툼, 폭력이 끼치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폐해를 인식하고, 다툼과 폭력을 멀리하며,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④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도9224. 성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⑤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	도9225. 이성 교제와 동성 친구와의 교제의 차이점과 이성 교제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성취기준 재구성 진술의 원칙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명시하기 위해 가급적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진술함으로써 ‘도달점 행동’이 드러나도록 한다. 다만 형식적 측면에서 ‘이해[인식, 마음]와 태도[실천]’로 나누거나 두 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과서에 따른 학교별 재구성 :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원 내용의 주제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재구성된 주제(소단원)별 성취기준은 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따라 성취기준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다시 재구성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과정상의 ‘(2) 친구관계와 도덕’의 ①에서 ⑤까지의 5개의 주제를

가지는데 이중 ②, ③을 통합하여 4개의 주제[소단원-1>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 2> 친구간의 갈등과 해결 / 3>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 4>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로 교과서에 따라서 소단원별 성취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국가수준의 <교과교육과정>과 교과별 <성취평가제 매뉴얼>이 따로 있는데, 어차피 교육과정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성취기준’ 그리고 나아가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까지 담고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면 이 두 권을 합치거나 적어도 좀 더 친절하고 성취평가제와 연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취평가제 매뉴얼>에서 제시된 내용별 성취기준과 평가계획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6.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인가? - 핵심 성취기준의 선정!

<현황과 문제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발표되면 이에 그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과서가 집필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이 모두 반영되고, 또한 집필상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교과서가 집필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과 주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나 집필진들은 집필 내용과 원고의 양을 거의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집필하고 교과서 소단원별 쪽수도 거의 똑같이 배분하여 출판할 것이다.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현장 교사들도 교과서의 단원별 쪽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업차시를 계획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볼 때, 무엇이 더 절실히 요구되며 덜 요구되는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텐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내용의 성취기준을 모두 도달하기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수업시수의 확대와 축소, 수업의 강약과 완급 조절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학습 내용별 성취기준을 **좀 덜 중요한 ‘일반성취기준’과 좀 더 중요한 ‘핵심 성취기준’**으로 나누어 교과별 교육내용과 지도차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성취기준 단원을 선정하고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교수·학습활동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와 특성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취기준과 비교되는 핵심성취기준은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성취기준 :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
- 핵심성취기준 : 교과별 성취기준 가운데서도 **보다 중요하고(important) 핵심적인 것(essential)**으로 추출된 성취기준.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각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써 여타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성취기준.

<제언>

예컨대, 다음의 대단원의 4개의 내용(중단원) 중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을 2개만 고른다면 [친구관계와 도덕], [사이버 윤리와 예절] 단원이 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성취기준 단원이 되며, 나머지 [가정생활과 도덕],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단원은 일반성취기준 단원이 된다.

대단원의 내용구성		핵심성취기준 선정에 따른 변화		
기준 차시	내용(중단원)별 소단원 구성	핵심성취 기준 단원	차시 (재구성)	비고
6	1. 가정생활과 도덕 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② 바람직한 가정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③ 노인 공경		4	-2
7	2. 친구 관계와 도덕 ①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② 친구간의 갈등과 해결 ③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④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예절	√	9	+2
5	3. 사이버 윤리와 예절 ①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사이버 폭력 ② 사생활 존중과 보호 ③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일	√	6	+1
5	4.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① 다양한 이웃들과 나의 관계 ② 배려와 봉사활동 ③ 상호 협동 정신의 실천		4	-1
23			23	0

무슨 이유로 그것이 일반성취기준과 핵심성취기준으로 선정되었을까? 그리고 핵심성취기준으로 선정되었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청소년기에는 삶의 공간이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사회로 크게 확장되어진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자주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와의 갈등과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친구 간의 바람직한 예절과 우정의 덕목을 실천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2. 친구관계와 도덕] 단원을 핵심성취기준 단원으로 정하고 수업에 비중을 높였다.
-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낸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네티켓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3. 사이버 윤리와 예절]을 핵심성취기준 단원으로 선정하고 수업의 비중을 높였다.
- 일반성취기준 단원(1가정, 4이웃)에서 1~2차시를 줄이고, 핵심성취기준 단원(2친구, 3사이버)에서는 1~2차시를 늘렸다.

이렇게 선정된 핵심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내용과 지도 차시 계획에 다음과 같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중단원, [1. 가정생활과 도덕], [2. 친구 관계와 도덕]에서 거의 균등하게 차시 계획된 종전의 수업이었으나, 학교폭력예방이 중요하고 우정의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는 핵심성취기준이 도입되면, [1. 가정생활과 도덕]의 수업차시를 줄이고, [2. 친구 관계와 도덕]의 수업차시를 늘린다.
- 학습내용에 따라서 교과간의 융합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가령, 가정도덕과 성과 사랑의 가치는 ‘기술·가정교과’와 사이버 예절은 ‘정보교과’와 융합수업도 가능하다.
- 늘어난 수업을 통해 친구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함께 문제를 찾아내며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여유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특히 핵심성취기준으로 선정된 도922의 [2. 친구 관계와 도덕] 중단원에서는 친구와의 우정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모듈별 협력·협동학습과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토론학습, 미래 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고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수행평가 활동, 공동선을 위한 실천 - 예컨대, 친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학교·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학습과 평가의 비중을 높여 진행할 수 있다.

7.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인가? -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황과 문제점>

일찍이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 하였다. 이때의 지식(Knowledge)은 개인이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며, 힘(Power)은 어떤 물리적 운동량이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力量)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현실은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요점 하여 공부하는 교육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다행히 근래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배움중심수업을 강조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량 기반의 수업 방법론이 교단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창의성과 더불어 참된 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라 할 때, 우리가 길러줘야 하는 참된 학력과 역량은 무엇일까?

《2012년 경기도교육과정》(2012)에서 발췌한 참된 학력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 **참된 학력** : 단순한 지적 능력인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고등정신능력인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과 정의적 능력인 호기심, 성취욕구, 도전의식, 책임,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영역으로 확장된 개념의 학력이다.
- **역량의 기본개념** : 개인이나 조직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관찰가능한 수행이나 행동의 준거로서,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

며 공통적인 능력이며 자기의 삶을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이근호 외(2013)는 최근의 교육방향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재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핵심역량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 **핵심역량** :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이며,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다.

21세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의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은 ‘학습 및 혁신능력’, ‘정보·미디어·테크놀로지 능력’, ‘생애 및 경력개발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량	내용	
Learning & Innovation Skills (학습 및 혁신능력)	Creativity &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능력
	Critical Thinking &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소통과 협업 능력
Information, Media & Technology Skills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능력)	Information Literacy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Media Literacy	매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ICT Literacy	ICT 기술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Life & Career Skills (생애 및 경력개발 능력)	Flexibility & Adaptability	유연성과 적응력
	Initiative & Self-direction	진취적 태도와 자기 주도성
	Social & Cross-cultural skills	사회성과 다문화 능력
	Productivity & Accountability	생산성과 책임감
	Leadership & Responsibility	(리더십과 신뢰성

○ Learning & Innovation Skills에서의 4C's : 21세기를 위한 초역량 (super-skills)

- * Communication(의사소통) : 생각, 의문점, 아이디어, 해결방안을 나눔
- * Collaboration(협업 능력) : 목표 도달을 위해 함께 일함-재능, 전문성, 지성을 모음
- *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봄,
(주제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와 수업을 넘나드는 학습활동
- * Creativity(창의성) : 혁신과 발명과 같은 새로운 접근으로 과업을 수행함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참고하면 우리 아이들의 역량형성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2012년 경기도교육과정에서》

국 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핵심역량의 내용	
영국의 6가지 핵심 기능	1) 의사소통 2) 수의 응용 3) 정보 기술 4) 타인과의 협력 5) 학습과 수행의 향상 6) 문제 해결	
독일 브레멘의 행동 역량	1) 개인적 역량 2) 사회적 역량 3) 방법적 역량 4) 기초 학습 역량	
대만의 10가지 핵심역량	1) 자기 이해와 잠재능력의 추구 2) 감상과 표현 창의력 3) 진로 개발과 평생 학습 4) 의사표현 소통과 공유 5) 존중 배려 팀 작업 6) 문화적 소양과 국제이해 7) 기획 조직실천 8) 정보기술의 활용 9) 적극적 탐구와 공부 10) 독립적 사고와 문제해결	
캐나다 퀘벡의 범교과적 역량	1) 지적 역량 2) 방법론적 역량 3) 개인적·사회적 역량 4) 의사소통 관련 역량	
뉴질랜드의 5가지 핵심역량	1) 사고력 2) 언어 상징 텍스트의 활용 3) 자기관리 4) 타인과 관계 맺기 5) 참여와 기여	
호주 빅토리아의 8가지 역량	신체적·개인적·사회적 학습	1) 건강과 체육교육 2) 대인관계의 발달 3) 개인적 학습 4) 시민의식
	간 학문적 학습	5) 의사소통 6) 디자인 창의력과 기술 7) 정보통신 기술 8) 사고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5가지 핵심역량	1) 정보의 수집, 분석, 조직 능력 2)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 능력 3) 활동의 계획 및 조직 능력 4)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능력 5) 문제해결력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 경기도교육과정》은 일명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e-based curriculum)’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래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 설계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독립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7개의 창의지성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역량은 연령대별(예컨대, 중1~중2, 중3~고1 등)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되고 제시되었다. 그 중, 중1~중2학년 대의 창의지성 역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창의지성역량’ :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길러줘야 하는 역량(중1~중2)

연 번	창의지성 역량	창의지성역량 개발의 주안점
1	자기 주도 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및 진로와 직업 탐색하고 준비하기 · 지적 활동에 몰입하거나 원인 탐색하기 · 학습의 기본 능력 구비하기 · 자발적인 학습 진단과 목표설정을 통한 동기 갖기 ·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매체 활용 능력 키우기
2	자기 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 절제와 인내심 기르기 · 확장된 세계관 형성하기 · 성공 경험을 통해 자아 존중감 형성하기 · 교과나 예술분야에 1 특기·적성 키우기 · 스포츠 기술 개발 및 건강 증진시키기
3	협력적 문제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방법 모색하기 ·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 찾아보기 · 주어진 여러 문제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해결능력	· 유연한 태도로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능력 기르기
4	문화적 소양능력	·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형성하기 ·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애호하는 태도 기르기 · 문학 및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키우기 ·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용적으로 포용할 줄 아는 능력 기르기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념 익히기 · 예술적 심미안 기르기
5	의사소통 능력	·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체득하기 ·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하기 · 자기감정 조절하여 말하기 · 다양한 자료해석 능력 익히기 ·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기
6	대인관계 능력	· 타인과의 상호 협동심 배양하기 · 사회적 협력 기능 함양하기 ·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 나 전달법의 대화능력 기르기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갖기
7	민주 시민 의식	· 민주적 학급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 · 정직한 마음으로 민주적인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 · 관용과 이해의 마음 갖기 · 자유에 따른 책임감 기르기 · 사회 정의의 개념 익히기 · 수용과 신뢰의 마음으로 민주적 태도를 갖기

7개의 창의지성역량과 별도로 각 교과별로 핵심역량을 3~4개 더하였는데, 도덕·윤리 과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도덕·윤리 과 핵심역량과 창의지성역량의 관계 - 《2012년 경기도 교육과정》 참고

핵심역량	개념	창의지성역량과의 관계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협력적 문제발견·해결 능력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타인의 사고나 느낌, 행동 또는 시각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소양능력)
공동선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	민주적 도덕 공동체 실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민주시민의식

<제언>

교육과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면 우리의 교육활동은 미래의 주인공이 갖추어야 할 역량 배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과교육과정 수립과 수업활동·평가활동의 지향점에는 성취기준과 역량 배양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몇가지 더 제언드리면,

- 국가수준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주요 가치·덕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역량’까지 더하여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 역량기반의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속의 ‘5. 교수·학습 방법’에서 역량기반 교수학습활동을 강조하고, ‘6. 평가’에서도 성취기준에 의한 성취평가제의 내용과 성취기준과 역량에 기반한 평가활동을 친절하게 제시했으면 한다.

8. 교과간 연계성과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이화(不同而和)의 정신으로!

<현황>

일선의 도덕교사들에게 물어보았다. ‘우리 도덕교과와 내용상 연관성의 높은 교과목은 무엇일까?’라고 그 결과 대체로 1순위는 사회, 2순위는 기술·가정, 3순위는 역사, 그 외 정보, 진로와 직업, 보건, 과학, 국어와 한문 등 순이었다. 어떤 교과목보다도 도덕과는 다른 교과목과 연관성이 높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한 삶과 올바른 삶의 문제를 다루는 본질적 물음에 답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 중학교 도덕의 영역·내용과 타 교과와의 내용과의 연계성

영역	내용		타 교과 연계성	내용 중첩
	일반수준	심화수준		
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마) 인간 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사) 도덕적 자아상 (아)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가정) : 청소년의 이해(발달과 자아정체성) / 진로와 생애 설계 진로와 직업 : 나의 발견/ 진로의사결정 및 계획 	(아)
II. 우리 타인과의 관계	(가) 가정생활과 도덕 (나) 친구 관계와 도덕 (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 (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마) 타인 존중의 태도 (바)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사) 청소년 문화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가정) :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이해(성과 친구 관계) / (기술) : 정보와 통신 기술 보건 : 성과 건강 정보 : 정보의 윤리적 활용 /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철학마당 : 2.사랑 / 3.가정 	(가) (나) (다)
III.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라)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마) 사회 정의와 도덕 (바)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아)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지리) :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사회(일반) : 개인과 사회생활-사회화, 차별 갈등 해결방안 사회(일반)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인권보장과 법 / 현대 사회와 사회문제 역사 : 민족운동의 전개 / 대한민국의 발전 	(가) (나) (다) (라) (마) (아)
IV.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가) 환경 친화적인 삶 (나) 삶의 소중함과 도덕 (다) 과학 기술과 도덕 (라) 문화와 도덕	(마)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바)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지리) :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가정(가정) : 녹색 가정 생활의 실천 / (기술) 생명기술과 미래의 기술 환경과 녹색성장 : 녹색사회를 위한 실천 	(가) (다)

<문제점>

교과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삭제하기란 쉽다. 특히 위에서 타교과와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은 교육과정 편성의 전문가들에 의해 어느 교과에서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기준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된다. 하지만 일선교단은 자기 교과 하나 가르치기에 급급하다. 그만큼 교육내용(그것이 교육과정

이든 교과서이든) 전달이외에 생활지도 잡무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이 뒷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간 융합에 대한 교단의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 지원과 물리적 환경이 미비하다.

<제언>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간 교육내용재구성을 위한 융합을 해야 하는 일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각자 전공 교과에 따라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교육내용으로 가르치지만 배우는 학생은 한사람이다.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배우는 학생이 중심이다.

미래인재를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교과교실을 많이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연관교과간의 팀티칭에 의한 블록 타임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교환과 시정운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 재구성을 위한 교과협의회와 교과간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부장간의 협의회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무·행정중심이 아니라, 교수·학습중심의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와 지원만을 기다리고 투덜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교과 단위 수업시간 내에서도 교과간 내용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교과간 내용을 나누며 진도계획이라도 비슷하게 맞추려는 나름의 노력은 교사의 몫이다.

Ⅲ. 마무리하며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은? - 뿌리로 돌아가자. 사람으로 돌아가자!

창의인성교육?, 창의지성교육?, 구성주의 교육관?, 배움중심수업? 그 어떤 교육, 그 어떤 수업에 대한 고민도 결국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삶·사람·사랑’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삶과 사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쁜 외모보다는 예절과 도덕성이 먼저이다. 그 어떤 자격보다는 인격이 먼저이다. 그 어떤 성적보다도 성품이 먼저이다. 어떤 화려한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보다 인간성이 먼저이다. 사람이 우선이며 목적이다. 이제는 졸라맨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명석한 판단력, 차가운 지성을 지닌 머리[Head]와 공감과 배려,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슴[Heart]과 도덕적 습관과 실천하는 용기가 있는 손발[Hand]을 지닌 전인(全人, whole man)을 길러가야 한다.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나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진정 행복해하며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깨닫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가는 교육을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삶과 사람과 사랑은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2012). 2012 경기도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12).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일부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일부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실과(기술·기술)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년도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매뉴얼-도덕과. 연구자료 ORM2013-20-3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 김진숙(2013). 국가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의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숙(2013). 국가 교육과정 연계의 현황과 과제. 교과 교육과정 연계성의 현황과 과제
수석교사 워크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3-28.
- 노영준 외(2013). 중학교 도덕1, 2 두산동아
- 민용성(2011). 교과 교육내용의 적합성 준거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제11권
제3호, pp. 19-41.
- 변순용 외(2011). 중학교 도덕1,2,3 천재교육
- 왕석순 외(2013). 중학교 기술·가정. 두산동아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3). 핵심역량기반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연구자료 ORM 2013-22-4.
- 이만희 외(2013). 중학교 정보. 길벗
- 전통문화연구회(2005). 현토완역 맹자집주
- 전통문화연구회(2005). 현토완역 대학·중용집주
- 최영길 외(2013). 중학교 사회1, 2. 비상교육